

BTS 지민, “전남 학생들 위해 써달라” 1억원 쾌척



‘BTS 선행’ 제이홉 이어 장학금 기부 이어져
전남미래교육재단에 기부... ‘전남교육 명예의 전당’ 헌액 예정
고향 부산에 기부 꾸준히 이어오다 이번엔 전남학생들 위해

세계적인 7인조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장학금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 출신 메인댄서 겸 서브래퍼인 제이홉(26·본명 정호석)에 이어 부산 출신 메인댄서 겸 리더보컬 지민(25·본명 박지민)이 전남미래교육재단에 장학금을 쾌척했다. 24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민이 지난 달 29일 전남미래교육재단(이사장 장석웅·전남교육감)에 장학금 1억원을 기부했다. 지민의 아버지 박현수씨는 아들을 대

신해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장 이사장에게 “전남 학생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장학금을 기부했다. 지민은 부산 출신으로 모교와 부산시교육청 등에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이번 기부는 고향이 아닌 전남학생들을 위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민을 전남교육발전 공로자로 ‘전남교육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예정이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BTS 지민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제이홉이 “후배들을 위해 써 달라”며 모교인 광주 국제고에 1억원을 쾌척했고, 학교 측은 1년에 15명, 1인당 100만씩, 5년 동안 모두 75명에게 제이홉 장학금 75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2500만원은 같은 학교법인(춘태학원) 산하 자매학교인 전남여상에 지원됐다.

제이홉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진도 신기어촌계, 목포해경과 해양자율방재단 발대



진도 신기어촌계(어촌계장 김성석)와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가 최근 어민, 해양경찰서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기 해양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갖고 신기마을 해변에 방치된 해양쓰레기를 치우는 ‘바다가꿈 행사’를 열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농협 전남본부, 여수 둔전마을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24일 여수시 돌산읍 둔전마을의 한 고령 농가를 찾아 주철현 국회의원, 전창근 여수시의회 의장 등 20여명과 1000만원 상당을 들여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를 했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동참



공후식(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제공>

“아이들 건강 엄마들이 지켜야죠” 면마스크 손수 제작해 전달

광주풍향초 학부모회

학부모들이 ‘엄마손 마스크’를 손수 제작해 전교생에게 선물하고, 이에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학부모회에 전달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24일 광주풍향초에 따르면 학부모회는 지난 6월22일~7월1일 풍향가족공방에 모여 병설유치원 원아 및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D 면 마스크’를,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체 면 마스크’를 제작했다. 이들은 두 종류의 면 마스크를 통틀어 ‘엄마손 마스크’란 이름을 붙여 전교생에게 선물했다.

‘엄마손 마스크’ 제작 및 전달은 학부모 동아리 ‘엄마씨링플러스’와 연계해 코로나19 극복과 환경교육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됐다.

일회용 마스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친환경적



광주풍향초 학생들이 부모들이 제작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오른쪽은 학생들이 쓴 감사 손편지. <광주풍향초 제공>

인 ‘엄마손 마스크’를 사용하면서 환경 사랑을 함께 실천해보자는 의미가 담겨있다.

오래 착용해도 보풀이 일어나지 않고, 일회용 마스크와 달리 필터만 지속적으로 바꿔 끼워주면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엄마손 마스크’는 코로나19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는 아이들이 좀 더 편하게 숨쉬

기를 바라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모여 이뤄진 결실이다.

학생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115편)를 전교학생회를 통해 학부모회에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광주풍향초 한 학생은 “엄마들이 우리들을 위해 힘들게 손바느질로 마스크를 만들



어 주셔서 감동했다”며 “정성껏 만들어 주신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잘 지킬게다”고 말했다.

전교학생회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편지 9편을 따뜻상·사랑상·기쁨상 등으로 선정해 학교 홈페이지에 지난 20일부터 게시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

TV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엄마가 바랐던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기막힌 유산(재) 40 지구촌 뉴스	45 결혼계약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야생여정(재)	00 퀴즈 위의 아이들(재)		00 우리끼리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45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 친구친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형설계
①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외전	50 내고향 전파 스페셜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5 광복절 특집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00 뉴스브리핑
③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④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테마스페셜 55 덕더 365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의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공부가 머니?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20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최강 1교시(재)
⑧	30 기막힌 유산	30 노래가 좋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나의 판타지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특선다큐 일곱 개의 대륙, 하나의 지구	30 공부가 머니?	
⑩	00 시사토론 '10' 50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35 육담방의 문제아들	50 PD수첩	2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⑪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내가 가장 예뻐할 때(재)	
⑫	1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1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20 나이트 라인 50 네모세모(재)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베어 베어스 : 곰 브라더스
07:15 출동! 슈퍼펍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7:30 뽀뽀뽀 뽀로로	12:30 클래스e	19:45 극한직업 스페셜
07:45 꼬마하어로 슈퍼픽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경이로운 지구
08:00 땡땡땡 유치원	13:55 미래교육 플러스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30 뽀로로 동화나라	14:45 레이디버그	<구석구석 알프스 -하이디처럼 살아보기>
08:45 방귀대장 뽀뽀	15:45 머털도사	21:30 한국기행
09:00 픽시	16:15 최고! 호기심딱지	<여름 별미를 찾아서 2부 위풍당당! 네 차례가 간다>
09:15 핫 하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6:30 땡땡땡 유치원(재)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명탐정 피트	16:50 해오와 해오	22:45 건축탐구 - 집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0:30 한국기행	17:20 아웅따웅 귀여워2	23:50 클래스e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로빈 후드	24:20 지식채널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히어로 씨클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토틀! 보니 하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5일(음 7월 7일 庚子) ☎ 010-9790-8237

子 36년생 분간하기 힘들 것이니라. 48년생 상호적인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겠다. 60년생 원칙적인 적용보다 합리적인 융통성이 더 필요한 때이다. 72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84년생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터지겠다. 96년생 제대로 호평 받게 되는 뿌듯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0, 54

丑 37년생 체면치레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느니라. 49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편하고 빠른 길이다. 61년생 직접적으로 관련 되지 않는다면 자치해도 된다. 73년생 용기 뿐 만 아니라 참신한 발상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85년생 요건을 구비하는 데는 애로 사항도 보인다. 97년생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5, 66

寅 38년생 지밀하게 준비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때다. 50년생 중차대한 소임을 맡을 수 있다. 62년생 실속 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74년생 아울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86년생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다. 98년생 단순한 비교는 착오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행운의 숫자 : 90, 57

卯 39년생 전혀 다른 영역을 접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51년생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가 필요한 때이다. 63년생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75년생 필요하다면 소급해서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느니라. 87년생 핵심 사실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99년생 강력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2, 72

辰 40년생 행운이 따르리라. 52년생 거시적인 안목으로써 내다 볼 줄 알아야겠다. 64년생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정적이며 편하다. 76년생 기동력과 순발력이 시급하다. 88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00년생 생존조용함을 타고 힘차게 진행 되는 도량이나라. 행운의 숫자 : 20, 64

巳 41년생 완급 조절을 잘 하지 못한다면 액을 부른다. 53년생 평소 애용하던 바를 실행하게 되는 판국이다. 65년생 판이란 사정의 변화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77년생 긴박한 상황에서 천군만마처럼 나타나는 은인이 있다. 89년생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01년생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매우 불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48, 69

午 42년생 새롭기는 하지만 기여도가 신통치 않다. 54년생 주체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66년생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겠다. 78년생 크게 잃을 수도 있으나 신중하게 처신하여야만 한다. 90년생 흔들리지 말고 강한 집념으로 계속 밀어 붙여야 한다. 02년생 얻는 바가 상당히 많겠다. 행운의 숫자 : 16, 76

未 31년생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직할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43년생 가급적이면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낫다. 55년생 때가 되면 불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67년생 전반적인 관리에 세심한 공을 들여야 할 때다. 79년생 예견되는 위험은 철저히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1년생 의미심장한 날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9, 97

申 32년생 안락하지 않다면 불리하다. 44년생 큰 것은 놓치고 작은 것만 붙잡고 있는 모양새다. 56년생 어려움은 경험의 밑천이 될 것이다. 68년생 이면에 숨어 있는 변수들까지 감안해야 안전한 것이다. 80년생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92년생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판도를 좌우하는 요체가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4, 62

酉 33년생 괜히 나섰다가는 이상한 입장이 될 수도 있다. 45년생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백 번 낫다. 57년생 집착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다. 69년생 과대평가 하고 있지는 않은 지 돌아볼 일이다. 81년생 주변에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곳이 보인다. 93년생 쉽지 않은 일을 맡는다. 행운의 숫자 : 17, 77

戌 34년생 매우 혼란스러운 양태이다. 46년생 시작만 해 놓으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58년생 전후 사정의 인과 관계를 파악해야만 가늠을 잡을 수 있느니라. 70년생 자기당착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82년생 예리한 판단이 필요하다. 94년생 오늘의 고생은 미래의 행운을 부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60

亥 35년생 기본적인 것은 그대로 유지해 나감에 옳다. 47년생 의외의 것이 눈에 띄겠지만 의미부여 할 필요는 없었다. 59년생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헤아릴 줄 알아야만 한다. 71년생 완급과 정도를 조절하자. 83년생 본격적으로 주력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95년생 건설적인 요인이 보이니 그것에 집중을 맞춰라. 행운의 숫자 : 40, 80